

붙임. 지원심의 총평

■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분야(aPD) 3차 PT/인터뷰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분야(aPD) 3차 심의
- 회의일시 : 2019년 9월 10일(화) 14:00~18: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다목적 홀

본 사업은 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들의 기획역량을 육성하기 위해, 이들에게 아이디어 실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기획자가 선명한 주제의식을 갖고, 그 주제를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획의 방법론을 모색,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발 당시 계획한 연구의 주제가 구체적인 연구 과정을 거쳐 충실하게 심화, 발전되었는지, 본인의 문제의식에 가장 적합한 기획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이 내용을 심화, 발전시켰는지 살펴보았으며, 한정된 기간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자의 기획력과 수행능력, 독자성을 비롯하여, 성취도 및 파급효과 역시 고려하였다.

1차 심의과정을 거쳐 선발된 연구원의 ‘기획안’ 인 만큼, 본 심의위원들은 연구원들이 초기 제시한 연구 주제 자체보다는, 리서치 기간을 거쳐 초기 연구 주제를 어떻게 심화 발전시켰는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제의 방향성을 효율적으로 구체화시켜나가는 성실도와 기획역량, 실험적인 태도에 주목했으며, 이들이 설계한 기획 안에서의 치밀함과 설득력을 고려하였다.

연구원들은 초기에 비해 주제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거나, 재확립하는 등 리서치 기간을 충실하게 보냈다고 평가할 수 있었으나, 이 주제를 실행하는 ‘기획방법론’을 구체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기획을 가장 잘 답을 수 있는 형식을 찾기보다는 기존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기획의 유형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치밀하게 구체화시키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모호하거나 목적 자체가 불투명한 기획, 연구자가 선택한 기획의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 없이 표면적인 형식만을 차용하여 내용을 나열한 결과, 주제의식을 공론화 할 수 없는 기획 등이 눈에 띄었다. 심의기준에 의거하여 연구원 7명의 기획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심의위원들은 연구 내용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연구원의 지원금액 안에서 차등 지급했다.

이 사업이 기대하는 ‘결과물’은 축제, 공연, 전시, 워크숍 등 보편화되어 있는 기획의 틀 자체를 완성도 있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획’을 찾아 실행하는 기획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기획 역량은 구색을 맞춰 ‘규모’를 키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나열하고, ‘형식’의 표면을 모방하여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규모가 작고, 설사 전형적인 형식일지라도 그 방식을 통해 본인의 주제의식을 가장 설득력 있게 구현할 수 있다면, 그 방식을 선택하는 결정력과 추진력, 본인이 구상한 기획의 구조를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설계, 실행하는 성실함과 집요함이 필요하다.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기획분야(aPD) 3차 지원심의 심의위원일동